

# LENA LAPSCHINA

러시아 출신인 레나 랍시나(Lena Lapschina, 1965~)는 1995년부터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며 회화, 사진, 비디오, 설치, 디지털 기술을 가로지르는 멀티미디어 작업과 전시 기획을 해왔다. 그는 진중함과 유머러스함을 주된 무기로 삼아 '정체성 정치', 자본주의, 글로벌리즘의 주제를 다뤘었는데, 특히 "주의: 이 사진은 당신을 바로 평양으로 이동시킨다"거나, "기술 애호가들에게 전하는 쪽지"처럼 특정 작품에 문장을 더해 관객의 웃음을 유발한다. 랍시나의 행보와 함께, 사회를 보는 작가의 렌즈 속으로 들어가 본다.



Lena Lapschina artist portrait © Lena Lapschina

## 레나 랍시나의 눈

박진아 | 미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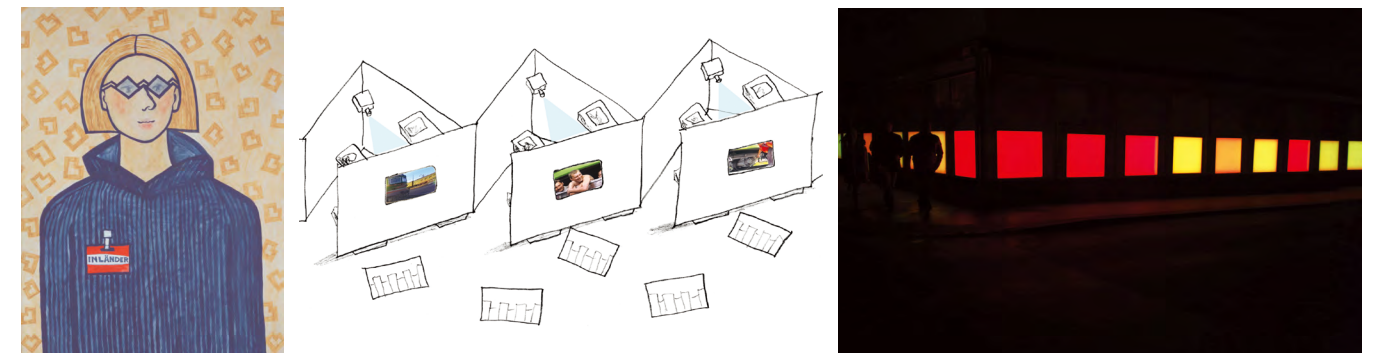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오스트리아 당국이 지난 11월부터 다시 강력한 록다운(봉쇄)을 실시하면서 전국의 모든 미술관 및 사설화랑이 휴관에 들어갔다. 이 봉쇄조치 직전인 2020년 9월 중순, 니더외스터라이히 주립미술관(Landesgalerie Niederösterreich)에서 전시 <난민의 흔적과 마스크(Spuren und Masken der Flucht)>가 열렸다. 이민 배경을 지닌 현대미술가 40인의 작품을 모은 이 전시에서 레나 랍시나는 20년 전으로 돌아가 러시아 국적의 작가가 오스트리아에 정착한 후 일상에서 경험했던 테마를 환기한다. 전쟁, 빈곤, 박해 등과 같은 피치 못할 숙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국을 버리고 타국과 이방의 장소로 피신해 새 인생을 구축하는 난민들의 이야기와 실존적 문제를 점검하는 전시에, 작가는 2000년 <ID 카드(ID-Card) 에디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자인한 외국인/내국인 신분증을 2쪽짜리 목판 성상화(ikon) 형식의 경쾌한 자화상으로 승화시켜 제시했다.

신분증용 초상사진으로 보이는 이 목판화 속 여성은 금발에 패셔너블한 디자이너 색안경을 쓰고 있다. 권력 당국이 발급한 신분증 종류에 따라 개인은 한 국가의 선취권자가 될 수도, 내국인의 관대로 일시 체류 허가를 받는 이류 시민이 될 수도 있다. 작가는 작품 <외국인/내국인>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내외국인을 판별하는 ID 카드는 '패물인가 낙인인가', '자유 의지에 따른

선택권인가 권한 기관의 지시문인가', '진짜인가 모조인가'를 묻는다. 작가는 성상화처럼 신뢰받는 신분증명서에 담긴 의미와 대중의 고정관념을 재고할 것을 제안한다.

명찰 정보로 작가를 판별하는 일은 미술계에서도 관행처럼 여겨진다. 임의의 범주에 따라 작가에게 라벨을 붙이고 미술계 체제라는 서랍장 속에 정연하게 분류하고 미술시장이라는 자산체제에 의거해 가격을 매긴다. 그는 "미술계는 작가에게 라벨을 붙이고 브랜드를 부여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러시아 작가라는 정체성을 내세우지 않는 개인으로서 작업할 뿐이다"라고 말한다. 동시에 특히 지난 30년 사이 글로벌리즘과 초국가주의가 현대미술계 담화 창출과 미술시장 추진동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미술가의 출신 국가, 거주지, 국적, 인종, 인생 스토리와 실존적 경험 배경 등에 기반한 '브랜드화' 현상은 지배적이었고 그 속에서 작가의 미술의 정체성 또한 고국 러시아와 결부돼 논의될 수밖에 없음을 차분하고 진지하게 수궁한다.

레나 랍시나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오스트리아에서 작업하는 작가다. 모스크바 국립 스트로가노프 예술아카데미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던 그는 1992년 건축 답사를 위해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것을 인연으로, 서른 살이 되던 해인 1995년 동유럽의 관문 도시 빈으로 와 정착했다. 작가가 20년째 거주하며 작업하고



왼쪽 <Ausländer/Inländer> tempera on paper diptych 86×61cm(each) 2000/2019 from <Spuren und Masken der Flucht> Landesgalerie Niederösterreich  
가운데 <Trance\_Siberia> three-channel video installation with sound dimensions variable 180min 2006  
오른쪽 <Propaganda> LED lightings on shop windows in Vienna 2nd district 2015



위 <Before I Start IV> tape drawing on 6 walls 60m<sup>2</sup> 2016 installation view of <Before I Start IV> London, City of Westminster  
아래 <Uninvited Guests> Drive-by murals for Festival der Regionen in public space Marchtrenk, Upper Austria 2017

있는 빈 가조메터 시티(Gasometer City) 주상복합 단지는, 2005년 빈 탄츠퀴르티에(Tanzquartier Wien)의 이벤트 '급진적 장소(radikal lokal)'와 슈타이리셔 헤르스트(Steirischer Herbst) 미술페스티벌에서 연달아 전시되며 주목받은 장편 사진 시리즈 <(1000mm/또는 침실 창문(1000mm/or the Bedroom Window))의 배경 무대가 됐다.

19세기 가스저장창고를 현대식 주상복합 생활공간으로 개조한 가조메터 단지에서 유독 작가가 사는 B동 건물은 오스트리아 건축설계소 코엠티멜블라우(Coop Himmelb(l)au)의 탈구성주의 아방가르드 건축미학과 유토피아적 도시계획 비전이 구현된, 빈 도시정부 도시재생사업의 빛나는 사례다. 과연 서유럽의 시민주의적 유토피아 정신의 구현된 이 거주단지 주민들의 일상은 구 소련 사회의 그것보다 더 풍족하고 더 세련되고 고상할까? 다원적·다층적 대중의 보편적 요구를 조정하고 충족한다는 현대건축의 거창한 사명은 오히려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았나?

작가의 침실 창가에 설치된 러시아제 제니트 망원카메라에 비친 아파트 공공공간은 밤낮으로 청소년 갱단이 소란을 피우고, 연인들이 말다툼을 벌이며, 애완견들이 짖어대고, 수리공들이 드나들며 공사를 벌이고 하늘에서는 슈베르트 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들의 엔진 소음이 끊이지 않는다. 때론 선정적이고 때론 진부한 스킨들이 연극처럼 펼쳐지는 범(汎)인간적 소우주다. 이 사진 연작을 가리켜서

오스트리아 예술비평 계간지 <리히통겐(Lichtungen)>(2005)은 1980~1990년대 앨런 세쿨라(Allen Sekula)의 사회 비평적 다큐멘터리와 일맥상통하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포스트-소비에트기 러시아적 영혼 탐색, 그리고 그 후**

2005년은 랍시나에게 분수령이 된 해다. 그해 빈 응용미술관(Museum für angewandte Kunst, MAK)에서 비디오 작품 <트랜스\_시베리아(Trance\_Siberia)>를 공개하며 빈 미술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제목이 시사하듯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길고 느린 기차 여행을 담은 3시간 분량의 장편 3부작 영상은 관객을 감미롭고 몽환적인 무아지경(trance)으로 인도한다. 노보시비르스크 출신의 뮤직 아티스트 누클리어 로스(Nuclear Losь)의 재즈풍 음악이 배경에 흐르는 가운데 차창 밖으로 자연경치가 반복돼 펼쳐지는 동안 기차 안 승객들이 게임과 독서와 집필을 하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기록한 이 영상을 통해서 작가는 초고속 디지털 이동통신과 교통수단이 일상화된 21세기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여행은 낭만과 노스텔지어의 상징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승객의 시간과 공간이 강제로 멈춰지는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역설을 시사한다.

러시아가 1991년 소련의 붕괴를 딛고 경제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러시아미술 평론가 보리스 그로이스(Boris Groys) 붐을 타고 국제 현대미술계도 러시아 열병을 앓았다. 러시아 미술가들의 영혼에는 지금도 1945년 알타회담과 냉전의



<A Tribute To Freedomism(Let's Roll Back The Carpet And Have A Dance!)>(film still)  
AR-enhanced multi-channel video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2019

서막이 구소련에 남긴 역사의 짙은 그림자가 서려있다. 빈 화랑 힐거브룻 쿤스트할레(Hilger Brot Kunsthalles)가 제2세대 러시아미술 페레스트로이카를 선언하며 기획한 전시 <러시아 르네상스(Russian Renaissance)>(2012)에서 랍시나는 AES+F 그룹, 아나톨리 오스몰로브스키, 블루노즈그룹 등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정후를 비판한 전위적 작가들과 나란히 아련하고 사무치는 정서를 제시했다. 골동 목판과 라이트박스에 설치한 사진 연작 <누구나 친구가 필요해(Every Person Needs A Friend)>는 눈 덮인 겨울철 대자연 한가운데서 녹아가는 눈사람에게 입맞춤하는 인물을 통해서 고독이라는 영원불변의 인간 조건을 응축시켰다.

지난 10년 사이 랍시나의 작품에는 정치적 관망과 사회적 논평도 빈번히 등장한다. 빈의 대도시 구획 정책이 낳은 사회적 부작용을 7부 사진 연작으로 기록한 <빈, 독일(Vienna, Germany)>(2013)은 오스트리아의 나치 과거사를 지금도 그리워하는 극우파 지지자가 남겼을 것으로 짐작되는 거리 벽낙서로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패와 원주민/이민자 간 갈등을 응축시켜 보여준다. 이듬해인 2014년, 빈 제2구역 두 거리가 만나는 대형 상점의 진열창에 18장의 5832 LED 패널조명이 초당 30회 깜빡이도록 설계한 <프로파간다>(2014)는 보행자들의 반응을 주시하며 “정보로 둔갑한 프로파간다-언론보도, 광고, 선동 등을 구분하라”고 호소한 사회적 개입 프로젝트다.

러시아 벽화가 빅토리아 로마스코가 벽화를 정치와 사회에 대한 시각적 보고서로 활용한다면, 랍시나는 유희적 장식으로

활용한다. “벽화는 대형작인 경우가 많고, 벽화가라면 거대한 작품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고 말하는 작가는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벽화 그리기에 대한 열정을 결합해 <칼, 개, 산, 차(Sword, Dog, Mountain, Car)>(2013)와 런던 웨스트민스터 빌라 실내 벽화(2016)에 작가가 이름 붙인 일명 ‘테이프 드로잉’ 기법을 사용한다. 밀칠이 된 흰색 벽면에 파텍스(Pattex) 접착테이프를 구기고 잘라 부착하는 이 방식은 본래 현장(in-situ) 건물이나 문화유산 같은 공공시설에 일시적으로 설치했다 훼손 없이 철거하기 좋아서 시작했다가 테이프 벽화(tape mural)로 정착됐다. 백색 벽면에 빨간색 테이프는 러시아 대륙을 뒤덮은 눈과 러시아 국기 속 아름다움의 상징인 빨간색의 무의식적 발현이라고 해석할지 모르겠다.

거리 낙서화의 두 거장인 뱁시와 미스터 브레인워시가 여전히 공공시설이나 건물 외벽을 화폭 삼아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랍시나도 드디어 실내에서 해오던 테이프 벽화를 야외로 끌고 나왔다. 2015년 가을 이후 유럽이 시리아와 아프리카발 난민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던 때, 페스티벌 테어 레기오넨(Festival der Regionen) 미술 비엔날레의 의뢰를 받아 착상한 거리 벽화 프로젝트에서 작가는 마르흐트렌크라는 시골 마을 중심부 교차로에 자리한 허름한 상점 건물의 외벽을 난민들의 아슬아슬한 야반도주 순간으로 전환시켰다. 머리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은 한밤 주행 중인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정체를 드러냈다가 차가 지나치면 잠쪽같이 암흑

속으로 사라지는데, 이 위트 있는 ‘드라이브-바이 벽화(Drive-by Mural)’의 주재료도 빨간색 테이프다.

2019년 10월, 빈 오타크링 구역 주최 연례 소호(SOHO) 예술 페스티벌 탄생 2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전시 <포폴리즘 시대 자유 견해(Freie Meinung in Zeiten des Populismus)>(2019)에서 랍시나는 2017년 북한 방문기를 비디오로 기록한 설치작업 <자유주의에 바치는 찬사(A Tribute to Freedomism)>(2019)를 공개했다. 오스트리아에서 북한을 소재로 한 미술을 대중 관객에게 소개한 것은 지난 2010년 빈 응용미술박물관(MAK)에서 전 페터 노에버 관장이 북한 방문 후 기획해 논란이 됐던 <김일성을 위한 꽃다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술과 건축전> 이후로 처음이다. 북한은 오스트리아 문화계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논란거리인 만큼 작가는 이 영상에 대한 관객과 언론의 반응을 예의주시했다. 예상한 대로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구상 최후의 은둔의 나라 북한은 예술인들에게 무한한 호기심과 신비의 나라다. 레나 랍시나의 <자유주의에 바치는 찬사>는 앞서 2015년 평양에서 세계최초로 아트 심포지엄(8.26~9.4)과 슬로베니아 록밴드 라이바흐의 평양 공연을 성사시키고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해방의 날>을 발표한 바 있는 노르웨이 영화감독 모르텐 트라빅(Morten Traavik)의 ‘DMZ 아카데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국제 현대미술가 및 큐레이터들과 북한의 최고위급 예술기관-평양미술대학과 만수대창작사사이 예술적 교류와 평화 도모를

내세운 이 ‘사회적 개입’ 프로젝트 기간, 작가는 자신의 본령인 비개입적 관찰과 집요한 영상작업을 거쳐서 초현실적이랄 만큼 이국적이고 기이한 ‘은둔 왕국’을 기록했다.

북한은 ‘진심으로 충성스러운 국민’의 국가인가 아니면 ‘충성스러운 척하는 탁월한 배우’의 국가인가? 작가는 묻는다. “구소련 시대 러시아인들은 체제를 맹종하거나 지도자를 숭배하지 않았다. 반면 북한 주민들은 북한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 듯했다”고 회상하는 작가는 <자유주의에 바치는 찬사>에서 김씨 왕조를 빨간색이 파도처럼 물결치는 프로파간다의 체제로 묘사한다. 사진 시리즈는 스마트폰용 아티바이브(Artivive) 증강현실 앱을 통해 관객에게 북한으로 순간이동된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북한 인민에게 ‘진심으로 충성적인 국민’과 ‘충성스러운 척하는 탁월한 배우’ 사이 양자택일 이외의 생존 대안이 있을까? 2015년 뉴욕에서 전시된 설치작 <YES/NO>는 사회적 쟁점에 담긴 대립과 그로 인해 빚어지는 역설과 오작동을 은유한다. 전시장에 들어선 관객은 어두운 벽면을 배경으로 눈높이에서 뿌옇게 부유하는 두 형광등관을 만난다. 앞에는 ‘YES’, 등을 돌리면 ‘NO’를 마주하는 관객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지만 양립할 수 없는 2항적 선택 대안 사이에서 사색할 것을 권유당한다. 혹 21세기 인류는 흑백논리 바깥 광활한 회색톤의 유유부단이라는 연옥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흑에서 다른 흑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



<Those Were The Days> AR-enhanced installation for Mdina Biennale 2020 commissioned by (Mdina Biennale 2020), Malta

## interview



## 오늘과 내일의 계획

**최근 선보인 사진 및 영상설치작품 <A Tribute To Freedomism>과 <Those Were the Days>에서 AR/VR 기술을 포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최신 디지털 기술은 당신 작업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미술가들은 흔히 아방가르드를 추종하며 작업하기 좋아한다. 초기 단계에 다양한 신기술을 실험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단 신기술이 성숙하고 주류로 편입되는 순간 일부 맥락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예술가의 관점에서는 더는 흥미롭지 않다. 나는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기술을 응용해 관객에게 보다 심오한 몰입감을 주고 싶었다. <Those Were the

Days>의 경우, 나는 회화와 기타 작품을 미술관 벽처럼 배치하고 관객들이 스마트폰 렌즈를 통해서 비디오 영상을 보며 사색에 잠기도록 유도했다. <A Tribute To Freedomism>은 증강현실을 통해서 종이인쇄판 잡지를 읽는 독자에게 영상 미디어아트를 감상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구호 “새벽에 기상해 백두산으로 행군한다”에 스마트폰을 대면 독자는 평양으로 간 듯한 몰입 경험을 할 수 있다. Artivive 앱(무료 iOS와 안드로이드) 설치 후 시도해 보기를 추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미술계가 혼란을 맞고 있다. 현 상황에서 미술인으로서 앞으로 취할**

**태도나 전략이 있다면 말해달라.**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논의로 사람들을 산만하게 하는 것 같다. 일 년이 넘게 우리는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작업 중인 작품과 기획하고 있는 작업의 방향을 설명한다면?**

지금은 영화 시리즈를 편집하고 있다. 한 주인공이 옛 삶을 버리고 더 나은 새 인생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인데 작년 여름부터 빈, 할슈타트, 라플츠와 크로아티아에서 촬영했다. 이 작업을 마치면 나는 다시 회화작업으로 복귀할 생각이다. 실제 모델을 앞에 둔 초상화를 그리는 레트로 감성의 재방문이랄까... 박진아 통신원